

홈장 4连胜, 연변팀 홈에서 날아올랐다

—실점 없이 깔끔하게 ‘3-0’ 완승

황진비의 멀티골에 포부스의 추가 골까지 더해지며 연변팀은 홈장에서 날아올랐다.

5월 26일 오후 3시에 연길시전민 건강체육중심에서 진행된 2025 중국 축구 갑급리그 제 10라운드 경기에서 연변룡정커시안팀 (이하 ‘연변팀’)은 정남감련팀 (이하 ‘정남팀’)에 3대0 완승을 거두며 홈장 4连胜을 달성했다.

홈에서 준수한 성적을 내며 상승세를 이끈 연변팀은 4-2-3-1 전형을 가동해 리룡, 서계조, 왕봉, 허문광으로 수비선을 구축하고 호재겸, 리강, 황진비, 도밍구스, 김태연이 중원을 책임졌으며 최전방에는 포부스가 원톱으로 나섰다. 키퍼 장갑은 구가호가 껴다. 한편 박세호가 교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경기는 시작부터 불꽃이 튀었다. 정남팀이 라인을 올려 밀어붙이는 데 맞서 연변팀도 물러서지 않고 맞공격을 펼치며 초반부터 치열했다.

팽팽하던 균형이 깨진 건 경기 시작 3분 만이었다. 왼쪽 측면에서 호재겸이 길게 올려준 크로스를 받은 황진비가 상대 수비수를 따돌리며 문전으로 질주하던 중 그대로 먼거리 슛을 발사했다. 몸을 날린 상대 키퍼도 어쩔 수 없는 슈퍼골이었다.

일찌감치 1대0으로 앞선 연변팀의 기세가 제대로 살아났다. 거기다 황진비의 컨디션이 최상을 달렸다. 선



이날 경기에서 1 골 1 도움을 기록한 포부스가 선수들과 함께 득점의 기쁨을 만끽하고 있다.

제골을 만든 지 10분도 안되어 추가 골까지 낚으며 황진비는 초반 12분 만에 멀티골을 완성했다. 이번에는 중앙에서 전개된 공격이었다. 중원에서 포부스가 앞으로 찰려준 패스를 황진비가 신속히 방향을 포착한 후 내달리며 패스를 이어받았다. 이번에도 수비

수를 따돌리니 이미 앞으로 나와 있던 상대 키퍼와 1대1 상황이었고 황진비는 침착하게 공을 띄워 빈 골문을 명중했다.

황진비와 포부스의 절묘한 배합이 빛나며 연변팀은 2대0으로 격차를 한층 더 벌렸다. 주도권을 단단히 손

에 쥐게 된 연변팀은 공격을 살리는 한편 수비망도 촘촘히 세우며 상대팀에 틈을 주지 않았다.

19분경에는 두번째 골에 도움을 기여했던 포부스가 먼거리 슛을 시도했고 이번에는 상대 키퍼가 쳐냈다.

런달아 2 골을 내주며 조금했던 정

남팀은 36분경에 두장의 교체 카드를 동시에 꺼내드는 등 반전을 노렸지만 연변팀의 수비를 뚫지 못하고 구가호의 선방에 막히며 답보 상태에 빠졌다.

추가 시간 2분까지 더 이상의 골 소식은 나오지 않았고 연변팀은 2대0으로 전반전을 마무리했다.

연변팀은 전반전 그대로 후반전을 시작했다. 전반전의 상승 흐름을 런결해 연변팀은 짧고 빠른 패스로 공격 활로를 모색하려는 노력을 보였다. 거기다 골을 내야 하는 정남팀이 진영을 전진 배치하면서 뒤공간이 생겼고 연변팀은 그 틈을 파고들었다.

그러던 중, 53분경에 연변팀의 두번째 골과 똑같은 상황이 연출되었다. 이번엔 황진비가 포부스에게 전진 패스를 찰려줬고 키퍼와의 1대1 상황에서 포부스가 띄운 공은 키퍼를 넘긴 했지만 수비수가 문전에서 거둬내며 득점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뒤이어 정남팀의 역습이 잇달아 연출되었으나 구가호가 번번이 선방을 발휘해 골문을 든든하게 지켜냈다.

64분경, 연변팀은 허문광과 김태연을 빼고 리세빈과 음바를 투입하며 첫 교체 카드를 썼다.

후반 65분에 접어들도록 골 수확을 못 본 정남팀은 반칙도 서슴지 않으며 거칠게 경기를 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연변팀은 각자의 위치에서 할 일

을 하며 로런하게 기회를 엿봤다.

78분경, 연변팀은 상대팀 문전을 휘저으며 황진비의 헤트트릭이 나오나 싶은 장면이 만들어졌으나 수비에 막혔고 인츰 상대의 역습이 예리하게 이어졌다. 그리고 이번에도 구가호가 또 한번 골문을 막아섰다.

81분경에는 리룡과 포부스가 왼쪽 측면에서 패스를 주고받으며 문전으로 돌파했고 포부스가 작은 각도에서 때린 슈팅이 골대를 아슬히 비껴가며 아쉬움을 삼키던 와중에 5분후 포부스가 자기절로 자신의 아쉬움을 만회하는 골을 폭발시켰다.

이번에는 리강이 중원에서 앞으로 멀리 찰려준 패스를 포부스가 달려가 잡았고 이미 금지구역 밖까지 나온 상대 키퍼를 상대로 공을 높이 올려 산뜻하게 따돌린 후 빈 문에 시원하게 밀어넣었다.

3대0, 후반 86분에 연변팀은 점수차를 더 벌리며 승기를 꼭 잡았다.

추가 시간이 4분 주어진 가운데 연변팀은 도밍구스와 포부스를 빼고 천창걸과 리금우를 투입하며 승리를 끝낼 준비를 했다.

마지막까지 아슬아슬한 장면이 나오며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던 경기는 최종 3대0으로 확정되었다.

홈장 4连胜으로 기세를 올린 연변팀은 6월 1일 소주동으로 안방에 불러들여 홈장 5连胜에 도전한다.

/ 김가혜 김파 기자

【 포토 포커스 】

황진비의 ‘비상’이 시작됐다



이름처럼 경기장을 날아다니는 황진비의 멀티골에 힘입어 연변팀은 지난 26일 홈에서 펼쳐진 정남감련팀과의 갑급리그 제 10라운드 경기를 시원한 승리로 장식했다.

올 시즌 연변팀으로 이적한 후 꾸준히 선발로 나서며 골 감각을 찾는 듯 보였던 황진비는 드디어 이번 경기를 통해 자신을 증명했다.

한편 황진비의 비상과 함께 골 결정력이 문제였던 연변팀의 공격 라인이 살아났다는 점도 몹시 고무적이다.

/ 글 김가혜기자
/ 사진 김파기자

■ 감독초대석 ■

득점한 공격수, 무실점 수비 모두 칭찬

5월 26일 오후, 연길시전민건강 체육중심에서 있는 2025 중국축구 갑급리그 제 10라운드 경기에서 연변룡정커시안팀은 3대0으로 정남감련팀에 완승을 거두며 홈장 4连胜을 달성했다.

경기후 있는 기자회견에서 연변룡정커시안팀 이기형 감독은 “전체적으로 우리 선수들이 부담이 많은 경기였는데 준비한 대로 잘 실현되어 선수들에게 고맙다.”며 운을 떼고 나서 “공격수들이 득점한 것도 아주 좋은 일이지만 특히 수비에서 실점

하지 않고 경기를 이긴 데 대해 키퍼를 비롯한 수비수들에게 고생했다고 따로 전하고 싶다. 오늘 경기는 우리가 리그 중위권을 유지하며 선두를 따라가느냐 아니면 조금 처지느냐 하는 경기였는데 선수들이 부담을 이겨내고 잘했다.”며 최상의 경기력을 선보인 선수들에게 거듭 찬사를 보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잘 준비하여 좋은 경기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표했다.

/ 김파기자

■ 경기후 ■

서계조 “6월 1일 홈장, 또 한번 승리로 어린이들에게 귀감 되고파”

5월 26일, 갑급리그 제 10라운드 경기에서 연변팀은 홈에서 3대0으로 정남감련팀을 완파하며 홈장 4连胜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경기후 연변팀의 무실점 승리를 이끈 수비수 서계조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오늘의 승리는 모두가 노력한 결과”라고 하면서 “공격에서나 수비에서나 매 사람마다 자신

의 본분을 다했다. 이 또한 감독진이 우리에게 포지한 것”이라며 소감을 밝혔다.

이어 “6월 1일 홈장(대소주동)에서도 계속해서 경기를 이김으로써 연변의 어린이들에게 귀감이 되고 싶다. 승리로 어린이들의 명절을 축하해주고 싶다.”고 결심을 보이기도 했다.

/ 김가혜기자

연변주 제 23 회 운동회 로년조 장기대회 개최

연변조선족자치주 제 23 회 운동회 로년조 장기대회가 5월 24일부터 25일까지 연길시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는 연변조선족자치주인민정부에서 주최하고 주체육국 주관, 주로년체육협회의 협조하에 진행되었다. 연길시, 룡정시, 돈화시, 화룡시, 도문시, 훈춘시, 왕청현, 안도현 등 8개 현(시)에서 온 조선족, 한족 선수 총 56 명이 이번 장기대회에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쳤다.

주로년체육협회 부주석 김철은 개회사에서 “이번 대회는 중화 우수 전통문화를 전승하고 로년층의 심신건강을 증진하며 적극적인 고령화 사회를 추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체육활동과 건강한 생활 방식을 통해 로년층이 ‘건강·행복·장수’의 삶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주로년체육협회 집행주석 광명준이 대회 시작을 선언한 후 첫날에는 단체

전이 5라운드 점수제로 진행되었고 둘째날에는 개인전이 7라운드 점수제

로 치러졌다.

이틀간의 치열한 각축전을 거쳐 단체전 총성적에서 연길시가 1위, 왕청현·화룡시·도문시가 2위, 룡정시·돈화시·훈춘시·안도현·돈화시가 3위를 차지했다. 중국장기 단체전에서는 연길시, 왕청현, 돈화시가 1등부터 3등까지 차지하고 조선족장기 단체전에서는 연길시, 화룡시, 룡정시가 1등부터 3등까지 차지했다. 개인전 중국장기에서는 송화군(연길), 류지민(왕청), 진립춘(화룡)이 1위부터 3위까지, 개인전 조선족장기에서는 김호일(연길), 리주석(연길), 심명섭(연길) 등이 1위부터 3위까지 차지했다. 이번 장기대회에서는 특히 연길시에서 온 선수들이 단체전과 개인전에서 모두 뛰어난 활약을 보였다.

/ 안상근기자, 최승진

연길시 제 2 회 ‘빙천’컵

축구협회컵 경기, 12개 팀 각축전 펼쳐

2025년 연길시 제 2 회 ‘빙천’컵 축구협회컵 경기(사회조)가 5월 17일부터 24일까지 펼쳐졌다. 추풍 FC, 동북범 FC, 광업 FC, 두만강 FC 등 12개 아마추어 축구팀이 토너먼트로 경기를 치렀는데 4일간(주말)의 치열한 각축전 끝에 추풍 FC가 우승을 차지하고 동북범 FC가 준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는 연길시문화복지호텔 레비존방송및관광국(체육국)에서 주최하고 연길시체육총회, 연길시 청소년아마추어체육운동학교, 연길

시축구협회에서 주관, 연변금대체육문화발전유한회사에서 협찬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로 2회째 열린 연길시 축구협회컵 경기는 연길시의 젊은 축구 문화의 저력을 과시하고 축구에 대한 광범한 인민대중의 열정을 보여준다고 아울러 <길림성 전민 신체단련 실시 계획>을 실행하고 전민 신체단련 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인민대중의 체질 및 건강 수준을 높임으로써 연길시 축구운동 종목의 보급과 발전을 추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 김파기자